전북 교육발전 '화합 행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후원회 출범… '경쟁자' 유성동 예비후보도 참석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 후원회는 지난 23일 전주시 평화동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후원회장에는 김병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이 선임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업인과 교육계,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유성동 예비후보가 직접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가 참석해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화합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다.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김병진 후원회장은 "교육과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남호 후보가 제시한 인공지능(AI)·로봇 기반 미래교육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성동 예비후보도 "이남호 후보의 리더십이 전북 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이제는 단순히 학교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 혁신 70일 대장정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정책공약집 발표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현장 중심 교육 혁신을 위한 '전북교육 혁신 70일 대장정'에 나선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5대 비전과 10대 정책 방향, 40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출생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책임교육 실현을 핵심 목표로, 지역과 연계된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

이번 공약 발표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지역 발전의 기회가 마련됐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천 예비후보는 "학교는 사라지고, 마을은 비어가며, 청년은 떠나고 있다"며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 혁신 70일 대장정'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정책 설명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소통형 공약 실천'이 핵심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미래역량 교육,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됐다.

천 예비후보는 이번 대장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이 함께 만드는 집단지성의 정책 여정"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으로,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온라인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천 예비후보는 "교육은 한 사람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며 "전북교육의 변화를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24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교양관 1층에서 '천 원의 아침밥' 시행 기념 배식행사가 열린 가운데, 박노준 총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배식 봉사에 나서고 있다.

우석대, '천원의 아침밥' 추진… 학생 복지 강화

6월 4일까지 전주캠퍼스 교양관서…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참여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가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재학생 복지 확대에 나섰다.

우석대학교는 2026학년도 1학기에도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일 전주캠퍼스 교양관 1층에서 열린 시행 기념 배식 행사에는 박노준 총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해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학기 사업은 지난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40일간 전주캠퍼스 교양관에서 운영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이 참여해 컵밥과 덮밥 형태의 테이크아웃 간편식을 하루 100명에게 제공한다.

학생들은 6,000원 상당의 식사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1학기 동안 약 4,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석대학교는 2학기에도 동일한 사업을 이어가 연간 총 80일 동안 약 8,000명의 학생에게 조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임용시험 교육 영상 '혁신 사례'

전북교육청 자체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교원임용시험 교육 영상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한 혁신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및 감독관 교육 영상' 우수 행정 모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교육청의 교육 콘텐츠를 벤치마킹하려는 타 시·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교원임용시험은 '공고문 미숙지는 응시자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사소한 실수로 수험생의 오랜 노력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제 시험 상황을 재현한 '실전형 교육 영상'을 기획·제작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제작 방식에서도 차별화를 보였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이그잼세이프(Exam-Safe) 행정연구회'와 내부 전문 인력풀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출연까지 전 과정을 맡아 100% 자체 제작으로 완성했다.

또한 폐교된 계화초등학교를 시험장 세트로 활용하고,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의 촬영 역량을 접목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 절감과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실제 시험장 환경을 구현한 교육 영상 시연을 비롯해 제작 과정과 기술 노하우를 담은 자료 배포, 폐교 세트 구축 과정을 기록한 브이로그 상영, 운영 유의사항 공유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맞춤 통합지원단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4일 전주 왕의지밀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전북 학생맞춤통합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에 대비해 단위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단은 교육부의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맞춤형 지원 체계 운영을 돕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연수 및 컨설팅 자료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교육지원청과 권역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권역별 협의를 통해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실제 컨설팅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역할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연수와 컨설팅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전북교육청, 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확정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 부패 제로 목표… 39개 과제 중심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과 부패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본청 국·과장, 감사관,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51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컨트롤타워다.

이번 계획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과 '부패 제로'를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분야, 39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전략은 △지속가능한 반부패 추진 기반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제도·시스템 혁신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청렴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기관장 중심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직접 부패 취약 분야 진단과 현장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학교 운동부와 교육공무직 채용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청렴 거버넌스를 확대해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전북 청렴 함께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렴 연극과 학생의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4월 중 정책 토론회와 민간 거버넌스 점검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직업계고 취업 맞춤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직업계고 3학년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계고 취업 맞춤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 발굴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취업 맞춤반 구성, 직무교육,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졸업 이후 경력관리와 재취업 지원까지 단계별 취업 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취업 맞춤반은 전북직업교육혁신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며, 학생들의 직무 적성과 취업 의지를 반영해 학과별로 5~10명 규모의 소규모 반으로 구성된다. 도내 27개 직업계고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반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돼 밀착 지도를 제공한다.

운영 유형도 다양화했다. 전공 관련 직무 역량과 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공특화형', 지역 산업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연계형', 공공기관 및 공무원 취업을 목표로 필기·면접을 지원하는 '공공부문형'으로 구분해 학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고졸자 후속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력 관리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전문대학 연계 P-TECH, 대학 계약학과 등 선취업·후학습 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인 성장과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 학교특화교육과정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특화교육과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4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74개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교육발전특구 학교특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향과 함께 각 학교의 계획서 보완 및 제출 절차, 예산 집행과 정산 기준 등 실무 중심의 운영 방안이 공유됐다.

학교특화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의 여건과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총 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무상 지원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등 보유 교과서 활용 방식으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과서 무상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24일 공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들도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고 공교육 수준의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으로, 현재 약 1,000여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업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입생 등을 위해 확보해 둔 교과서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추가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과서가 필요한 청소년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보유 교과서 목록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택배나 우편, 방문 수령 등 원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은 학기별로 진행된다. 1학기 교과서는 4월 이후, 2학기는 10월 이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교과서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